월간 실버저널
Newspaper SILVER JOURNOR

제 2017 01호

발행인 중구노인복지관 윤원찬 **편집국장** 임금칠 **편집위원** 이승희 박한선 **인쇄** 샘프로세스

❖ 후원안내 ❖
(사)국제와이즈맨.광고협찬.
실버언론봉사단이 제작함.

02 - 따숨
03 - 옛향수를 찾아서
04 - 아카데미드림시니어스
05 - 노인과 효
06 - 봉선화
07 - 동양철학



창녕 남지 유채꽃

여러분의 나눔을 기다립니다.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중구노인복지관

◆ 사랑을 나누는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구 분	후원내용	후원계좌
후원 내용 및 후원계좌	현금후원	중구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위한 후원 및 기타 복지관 운영을 위한 기금후원	〈본관〉부산은행 092-01-014284-0 〈분관〉국민은행 106901-04-084875
	물품후원	식품류(쌀 등),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기부	

◆ 행복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가 되어주세요.

자원봉사활동 분야	• 전문봉사: 이미용, 의료, 교육 등
	• 노력봉사: 경로식당(급식보조),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진행보조 도시락 배달, 행정업무 및 행사보조 등

중구노인복지관에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주실 분들은 중구노인복지관(☎ 241-2591~2)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산복도로에 따뜻한 숨결을 나누는 시니어 문화나눔 조직 '따.숨'

2017년 새봄과 함께 찾아온 「따.숨」 시니어 문화 나눔 활동의 멋진 발족을 소개합니다.

우선 중구 산복도로의 소외된 곳곳에 문화를 매개로 하여 이웃 사랑의 따뜻한 숨결을 전하고자 시니어들이 주축이 되어 문화조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구노인복지관 분관에서 4개 분야의 동아리가 각자 재능과 봉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따.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합니다.

1. 문화 나눔 활동에 참여하는 동아리들이 보다 나은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전문교육, 지역탐방, 공연관람 및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2.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공연 및 전시, 체험 활동 전개
3. 문화 소식지 제작 및 산복도로 문화축제 등 주민과 함께하는 활동 전개





이를 통해 따.숨이 함께 숨 쉬는 중구 산복도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뜻에 함께 동참하는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우선 '은빛 나래 음악 봉사단'입니다.

13명의 남녀 단원들로 구성되어 관내 · 외에 있는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대학,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매월 7회 이상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옛날 음악으로 또 악기연주 등의 공연으로 봉사하는 모임으로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록달록 종이접기로 마음을 나누는 '종이공예 동아리'로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체험의 재미를 심어주고 있는 단원들입니다. 또 신명나는 우리가락 '행복 두드림' 동아리는 장구와 북, 꽹과리, 징이 어우러져 살아있는 우리 전통의 가락을 곳곳에 전하고 있습니다. 11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순간순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한 '사진 동아리' 회원 10명이 열심히 사진으로 남기는 작업에 몰두하여 지역 내에 전시회를 열어 많은 이들에게 추억을 남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중구 산복도로에 계신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도록 도움을 주기위한 활동으로써 지역 내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이 모든 행사는 바야흐로 재능기부의 마음가짐으로 시작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본 기자 이미애는 위와 같은 재능기부 및 문화 나눔 활동에 참여한 40여명의 단원들에게 멋진 노후와 보람 있는 시간이 되길 화이팅!!을 드립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 연 분 야** : 은빛나래봉사단(노래), 행복두드림(사물놀이 공연)

◆**체험 및 전시** : 사진 동아리(사진전시 및 촬영체험), 종이공예동아리(종이공예 체험)

◆**대 상** : 중구관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학교, 복지시설, 요양시 설, 경로당, 지역사회 내 행사 등 문화체험이 필요한 곳 어디든 찾아갑니다.

◆**신 청 문 의** : 462-0613, 담당 사회복지사 박한선

본사업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지원합니다.**

이미애 기자

영화를 통해 소통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영화제작반 이야기,

여기 영화를 매개로 사회참여활동을 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구노인복지관 분관에는 2011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13기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영화제작반이 있습니다. 이 영화제작반은 노인의 문제와 이슈를 다룬 영화를 기획, 제작하고 지역 내에서 상영회를 가져 지역사회 내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에 필요한 주제정하기, 스토리 구성하기, 시나리오 작성, 영상물 제작 등의 사전교육을 갖고 각각의 회원이 촬영, 음향, 소품, 배우 등의 역할을 맡아 영화를 촬영합니다. 촬영한 영화는 편집을 거쳐 한편의 멋진 영화로 탄생합니다.

완성된 영화는 지역사회 내에서 상영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정성들여 만든 2개의 작품이 2016년에는 '제6회 부산실버영상제'에서 대상, 우수상, 감독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영화제작반의 선진규 회원님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젊어서 이룬 성공보다 새로 시작한 노년의 영화제작에서 이룬 성과들이야 말로 내 인생에서 이모작을 심고 거둔 것이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 소개되는 우리의 작품과 객석을 매운 사람들을 보고 있는 순간 '정말 우리가 해냈구나' 하는 벅찬 감동이 가슴을 찡하게 했다. 영화제작반 멤버들이 6개월 동안 직접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촬영하고, 편집하며 땀 흘렸던 순간이 오늘만큼은 아름답게 느껴졌다.'는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영화제작반의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대상수상작 - 정류장

소개 :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어머니에게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았지만 어머니가 아픈 지금에서는 그 누구도 모시기 싫어하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노인의 쓸쓸함과 자식들의 이기심을 꼬집었다.



임금칠 기자







옛향수를찾아서.. 중앙 이발소를 찾아서..



중앙동 옛날 반도 호텔 뒤 식당골목 한귀퉁이 2층에 중앙 이용원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이곳 사장님이신 황명철(71세) 씨의 중앙동 과의 인연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지금으로부터 57년전 4,19 혁명으로 사회가 어수선할 때 고등학교 등록금을 가지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 무작정 부산으로 오게된 것이 부산의 중앙동이란다,

그당시 중앙동은 세관이 가까이 있는 관계로 외지인이 많이 모이고 부산의 중심지로서 정착되어 있었다, 밤새도록 열차를 타고 와서는 중앙동의 다방이나 이발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시절이였다.

그 당시의 직업으로는 이발소가 가장 인기가 있었다.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는 밥만 먹여주고 잠만을 재워주면 최고의 직장이었다.

월급은 고사하고 바닥에 물 뿌리고 청소하는 기본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머리를 감기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곁눈질로 가위질 하는 것도 배우곤 하였다,

휴일에는 하루 종일 극장 안에서 포대 간빵 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다,

그때의 중앙동과 동광동은 부산에서도 알아주는 환락과 유흥의 도시였다, 전국의 많은 무역상들이 밤낮 없이 붐비는 동네였고 그당시 전국에서 제일가는 반도호텔의 위상도 대단하였다,

이북에서 피난을온 사람들의 만남의 광장이 40계단이었고 영도다리 근처였다,

40계단 근처에 움막집이 많은 것도 헤여진 형제 자매들을 만나기 위해 모여 있었을 정도였다,

중앙동과 대청동에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전차들이 다니고 있을때 이발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발을 하고 있다 보니 이발이 천직이 되었고 결혼도 하였고 자식들 공부도 시켰고 제각기 짝을 이루어 결혼도시켜 지금은 가끔씩 손자들의 재롱을 보는것이 유일한 낙으로 변했다.

전성기 때는 지금의 용두산 공원 뒷골목에서 고갈비집들이 즐비할 때 술 한잔 씩 하기도 하고 어쩌다 돈이 모자라면 시계를 저당 잡히고 다음날에 찾아가는 것도 비일비재 하였던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뿐이다,

전국에서 통관 업무를 위하여 몰려들었던 상인들과 거간꾼들의 천국 이 었던 때는 중앙동에만 이발소가 170 여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중구전체에 50개정도가 남아 있을 뿐이다. 그나마 보시다 시피 옛날 그대로의 시설에 옛날식으로 이발하는 것은, 기술이 옛날그대로이지만 지금도 옛정서를 찾아서 매번 들리는 단골 손님들이 솔솔이 있기때문에 이발소를 항상 개방해두고 있단다.

이태형 기자

할아버지의 작은사랑

칠십 고개 넘어가니 어릴 적 동네 어르신들이 허리 및 다리통증에 관해 서로 치료방법을 의논하던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며칠 전 걸어 다닐 때 가끔 좌측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더니 지하철 이용하려고 계단 내려갈 때는 심하게 불편해 자주 한의원과 병원을 찾게 되었다.

운동부족 원인이라는 주위 주민들의 권유로 강변과 공원주변 산책길을 자주 이용해 걷기운동과 공원에 설치된 다양한 운동기구로 팔다리 및 허리 운동하면서 지내는 편이다.

오늘도 오후운동을 마치고 골목길을 따라 재래시장 입구를 지나는 순간 팥죽집 가마솥에서 김이 무럭무럭 솟아올라 갑자기 허기 채워야겠다는 생각에 주문한 죽을 기다리는 동안 푹신한 의자에 깔린 종이팩 방석을 만져보았다.

색깔과 무늬를 조화롭게 배치하여 엮은 공예품에 가까운 솜씨는 일반 시중에서 구매할 수 없는 예사롭지 않는 물건으로 푹신한 방석의 취득 경위를 듣게 되었다.

겨울철 찾아오는 손님들이 차가운 의자에 대하여 불평하는 소리를 듣게 된 82세 노인이 종이팩으로 만든 방석 2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때마다 손수 만든 방석을 받은 것이 의자마다 가지런히 놓여 졌다고 설명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탁자와 의자의 색깔과 잘 어울려지도록 사각 모양에다 짜임새 있는 숨은 지혜를 발휘하여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물방울이 떨어져도 젖지 않도록 비닐로 싸여 있어 매우 단단하고 신축성까지 뛰어난 걸작이다.

의자위에 나란히 정돈 되어있는 25개 방석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다 노인의 따뜻한 정성과 사랑이 묻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세상 어느 것 보다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나눔의 정신이 스며있었다. 따뜻한 죽을 먹는 동안 고귀한 노인의 정이 묻어있다고 생각하는 방석에서 우러나오는 포근함에 나의 마음 한구석에서 메마르지 않는 사회의 온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하였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 다하도록 자유롭게 오랜 노동의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스스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의 얼굴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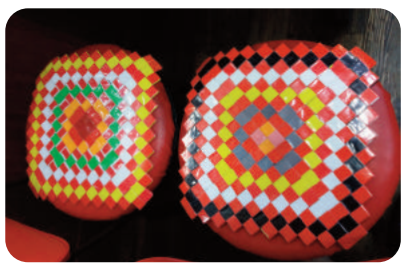
이웃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인데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기 위한 일이라고 하여도 젊은 부부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솔선하여 만인이 이용하는 의자에 본인의 사랑을 담아내는 진정한 선물에 훈훈한 그의 인덕과 교양이 묻어있는 듯 아직도 사회는 조그마한 헌신으로 훈훈하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인정에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우리 사회가 존재하고 있음에 진정으로 감사드려 봅니다.



김충수 기자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기인식 및 지역사회 이해 프로그램

『아카데미 드림 시니어스』

중구 · 금정구 · 남구 · 동래구 노인복지관이 학습과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중구노인복지관『아카데미 드림 시니어스』일정표

회기	일 시	프로그램명	내 용
1	5/12(금) 15시~16시 30분	〈개강〉 오리엔테이션	‣ 오리엔테이션 – 담당 사회복지사 및 참여자 소개 – 프로그램 사업 진행 일정 및 내용 안내
2	5/17(수) 15시~16시 30분	노인에 대한 이해 교육	‣ 자기이해 I – 삶에 대한 이해(인생곡선)
3	5/19(금) 15시~16시 30분		‣ 자기이해 II –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기이해
4	5/24(수) 15시~16시 30분		‣ Well 노인상 I – 사회구성원으로서 선배시민
5	5/26(금) 15시~16시 30분	사회참여에 대한 교육	‣ 사회참여 이해와 사례 – 국내외 사례 및 참여방법 – 사회참여의 이해, 필요성, 동기부여, 인정과 보상
6	5/31(수) 15시~16시 30분	노인에 대한 이해 교육	‣ Well 노인상 II – 자신의 강점 찾기
7	6/2(금) 15시~16시 30분		‣ 생의 설계 – 삶의 계획표 세워보기
8	6/7(수) 15시~16시 30분	사회참여에 대한 교육	‣ 사회참여 사례 – 소통 I. 대화기법
9	6/9(금) 15시~16시 30분		‣ 사회참여 사례 – 소통 II. 세대 간 소통 (미디어, 눈, 신조어 등)
10	6/14(수) 15시~16시 30분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 지역알기 – 지역의 역사, 실태 등
11	6/16(금) 15시~16시 30분		‣ 지역조사 – 합의된 지역 돌아보기 I
12	6/21(수) 오후 15시~17시		‣ 지역조사 – 합의된 지역 돌아보기 II
13	6/23(금) 15시~16시 30분		‣ 지역조사 – 내용공유(탐방 후 발견된 이슈공유)
14	6/28(수) 15시~16시 30분		‣ 이슈찾기 – 실천 가능한 이슈공유
15	7/5(수) 15시~16시 30분	수료식	‣ 수료식 – 수료증 배부, 기념사진, 평가
16	8월 중	공동교육	‣ 공동교육 – 선행사례 공유 및 교육

만 55세 이상 본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지역사회 내 활동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함께 하실 분들은 중구노인복지관 **이승희 사회복지사 (☎241-2591)**에게 문의 바랍니다.

❖실버저널 기자단❖

직 책	성 명	년	비 고
편집국장	임금칠	72	시인, 출판사 대표 010-4952-0311
부국장	김계리아	80	문화해설사 010-4555-0475
기 자	이영근	80	문화해설사 010-9550-7416
기 자	김영복	74	문화해설사 010-2070-5925
기 자	오영진	80	문화해설사 010-4543-8181
기 자	이미애	69	문화봉사단 010-4871-4832
기 자	윤순심	69	문화봉사단 010-5035-1085
기 자	김충수	77	인권 전문상담가 010-3855-8010
기 자	이태형	62	인문학교수 동양철학자 010-8484-4099
사진부장	박차진	61	샘프로세스 ,사진작가 010-4553-2160
기 자	장상구	71	노인신문기자 010-4854-1758
기 자	윤정의	57	국제와이즈맨 010-9954-0309
기 자	박남근	72	보훈병원 호스피스팀장 010-2056-7976
기 자	최한기	77	외과 전문의 박사 010-6570-5751
기 자	오창록	65	정형외과 전문의 박사 010-9936-6027
기 자	장란수	67	국제와이즈맨 010-3615-5729
기 자	옥치용	72	정읍 노인대학 교수 010-5633-9633
기 자	백형기	70	춘천 YMCA이사장 010-4423-2002
기 자	정기성	65	강릉 대학교 교수 010-5372-4501
기 자	이경호	64	경성 대학교 교수 010-5230-1116
기 자	이영식	68	국제와이즈맨 010-2555-4737
기 자	김귀순	69	요양보호사 010-4463-4720
기 자	제 옥	70	문인 수필가 010-9393-1187
기 자	문장율	65	문인 수필가

신문제작 경험이나 제작에 관심있는분
실버저널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노인(老人)과 효(孝)

恕悟 文 章律



세상의 모든 삶이라는 것을 불가(佛家)에서는 업(業)이라 합니다.

우리들이 어머니의 자궁을 떠나 세상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부터가 선(선)과 악(악)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 자리 잡는 것을 이름입니다.

또한 생(生)과 사(死)의 공존함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명해야 하는 구차한 운명 속에서 지내야만 것을 이름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삶을 영위해야만 하는 두려움과 죽음에 이르러야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약육강식이라는 무서운 원리를 터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업(業)이라는 것입니다

아비귀환이 아니면서 이를 닮아가는 삶!

마음은 선(善)보다는 살아가야만 한다는 악(惡)의 시종인 욕(慾)을 예뻐했고 소유(所有)하고 감추어 축적해야만 하는 습관을 양육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은 종자 번식을 위해 울타리를 만드는 것에 재미를 붙였고, 싸움이라는 약속아닌 다짐을 하는 무리들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짧은 생은 죽음을 향한 행진 속에서 더럽고 추잡함만을 남기는 실수를 저지르고만 것입니다.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를 두고 문명의 발전 과정이라고 명명했고 이를 자위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선(善) 보다는 악(惡)의 시종임을 자랑스러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했기에 삶에는 이를 화해하려는 노력들이 생겨났고 종교와 도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삶에 대한 화해 무드를 위해 도덕이 필요했고, 죽음에 대한 두려운 해방을 위해 종교가 생긴 것입니다.

인류는 이러한 묵계 속에서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이 세상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동양에서는 장유유서와 효(孝)라는 공경사상이 있어 나이든 노인들에게 편안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된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 좋은 사상은 쇠퇴해 가고 있으며, 노인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노인(老人)은 땅을 일구어 가꾸며 살다가 쇠퇴된 사람을 뜻함 입니다.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된 인류의 역사이며 산 증인인 것입니다. 또한 효(孝)는 이러한 노인을 자손이 받들고 살아야 하는 도리를 뜻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동양의 사상임이니 계승하고 발전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사라져가는 좋은 생각인 이러한 사상!

노인들은 이를 슬퍼하기에 앞서 스스로 깨우치고 닦으며 살아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효"를 실천하는 연구회를 만들어 지역 봉사를 하며 느낀 것은 원수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온 몸을 바쳐 헌신하는데, 자식은 제 삶만을 위해 투자하며 사는 세상에서 생긴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식과 세상을 위해 살아온 모든 것이 후회를 남기는 것으로 변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섭시다.

새로운 삶을 가꿉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인 것입니다.

문명을 발전시킨 그 때의 힘을 백분 발휘하여 새 삶을 일굽시다. 누워 있지 말고 앉아 있지 말고 움직여 스스로를 가꿉시다.

후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마지막 남은 생을 위해 살아봅시다.

나의 존경하는 선배이자 친구들인 노인들이여!

莞島 竹靑里에서



문장율 기자



봉선화



봉선화는 일년초로 여름에 피는 꽃이다. 작열하는 뙤약볕에도 굴하지 않고, 천둥 번개와 함께 쏟아지는 소나기 속에서도 환하게 웃는다. 함초롬히 수줍음 타는, 처녀처럼 다소곳이 아래로 드리워져 핀다. 꽃이 진 후 조롱조롱 매달린 복슬 강아지 같은 씨앗은 다섯 조각으로 갈라지며 탁 터지는 게 신비롭기까지 하다. 나는 우연히 오늘 그런 봉선화를 아파트 화단에서 보았다. 한 뼘 정도 자랐다. 줄기도 잎도 살이 쪄 통통한 것이 서로 키 재기를 자랑하듯 나란나란히 서 있다. 그들을 보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 붉게 물들었던 손톱이 생각났다.

엄마가 재긴 봉선화 잎을 내 손톱 위에 얹어 호박잎으로 싸매면 손톱은 어머니 사랑으로 물들었다. 내가 어릴 때는 봉선화는 집집마다 길거리마다 동네 우물가, 학교 등 어디를 가던 쉽게 볼 수 있었다. 꽃 색은 적황자백 등으로 네댓 색 정도다. 요즘은 nail이라는 게 있어 붉은 것부터 노랑 파랑 심지어 검은색도 칠하고, 색의 다양성은 봉선화에 비하면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이 많다. 거기다 그 작고 좁은 손톱 위에 각양각색의 그림도 그린다. 이렇게 화려한 색과 무늬로 손톱에 칠을 해서 멋을 과시하고 있지만 인공적인 이 멋보다, 봉선화로 물들인 손톱은 오래오래도록 남고 더 없이 정겹다. 어머니 손바닥의 호박잎 위에 놓인 내 손톱은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했다. 엄마가 정성 드려 호박잎이나 아주가리 잎으로 싸매어준 손가락 자랑에 밤이 늦도록 재잘 됐다. 잠자는 동안 여기저기 긁다가 뚫어지지는 않을까? 아주 빠져 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조바심의 봉선화 물은 어머니의 사랑과 정이 물들어 더 없이 따뜻하고 포근하다.

어린시절 오뉴월(음력) 삼복더위가 스르르 기울 때이면 엄마는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봉선화 잎(꽃잎보다)을 따서 돌 위에 놓고 꽁꽁 찧었다.

소금과 백반을 넣고 재어 두고, 뒤뜰의 호박잎을 따서 그늘에 말려 시들시들하게 만든다. 저녁을 먹고 잠 들기전 동물을 치고 모기장에 들 때쯤이다. 재겨 둔 봉선화와 시든 호박잎, 시침실 꾸러미들 든엄마 앞에 딸들이 옹기종기 둘러앉는다. 주위는 숙연 할 정도로 조용해지고 일곱 딸은 까만 눈동자를 굴리며 '내 먼저'의 차례를 기다렸다.

어머니는 시든 호박잎 위에 제일 먼저 막내 새끼 손가락을 올려놓고 손톱 위에 찧어놓은 봉선화를 조금 얹고 곱게 싸고는 흰 시침 실로 챙챙 맨다.

엄마가 우리들 손가락을 모두 싸맬 동안 우리는 차례로 땀을 흘리는 엄마한테 부채질을 했다. 한 사람은 연신 실을 잘라 어머니 손에 쥐어 드리려고 준비한다. 이렇게 공동 작업이 끝이 나면 호박잎에 싸인 내 손톱이 뚫어 지지 않게 제각기 제 가슴 위에 두 손을 얹고 조용히 잠든다. 어머니의 사랑이 물이 든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하면서 잠자던 손톱을 누운 채 저마다 제일 먼저 올려다본다. 호박잎이 하나도 뚫어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손톱은 물론이고 주위 살갗도 물들긴 했어요 물은 곱게 들었다. 우리는 누구손톱이, 어느 손톱이 제일 잘 들었나, 서로 견주어 보면서 깔깔거렸다. 이렇게 봉선화로 물든 손톱은 어머니 사랑이 정이 물든 것이다.

나는 nail를 잘 칠하지 않는다. 이유는 게을러서다 그러나 결혼식 돌잔치 등 축일에는 옷에 맞추어 예쁘게 칠한다. 그러면 언제 보았는지 손녀 녀석이 nail병을 들고 내 곁에 찰싹 붙어 고사리 같은 손을 쭉 내민다. 난 어쩔 수 없이 손녀가 시키는 대로 손녀의 고사리 손톱에 빨강 색을 칠한다. 그러나 올해는 아파트 화단의 저 어린 봉선화가 쑥쑥자라 삼복더위를 이겨낸 후쯤엔 잎을 따다가 내 손녀의 손톱에 물을 들여 줘야겠다. 오래가고 변하지 않는 내 사랑을 물들이면서 먼 옛날을 그려도 보고 가슴 깊이 물든 내 어머니 사랑을 손녀에게 전하고 싶다.

제옥 기자



부산의 새마당 광장



▼새마당 광장 1926년 부산역

한 시절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부산의 번화가로 화려했던 중앙동에 「새마당」이라는 광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없어진지 꽤 오랜데, 엉뚱하게도 사십 계단 테마거리 한 가운데 <해양 매축>이란 표제로 된 안내판이 다소곳이 서 있다.

그 안내판에 가로되 "1992년 7월 부산항 매축 공사를 하여 중앙동 일원에 새로운 땅을 확보하고 「새마당」이라 불렸다." 라고 간략하게 기술하였는데, . 여기에서 '새마당' 이라 함은 옛 「부산본역」 광장을 지칭한 것으로 생각되며, 더구나 '새마당'의 내력을 잘 모르는 소치라 짐작되기에 옛날을 회사해보게 되었다.

1876년 부산항 개항 전후에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서양인들이 송현산(용두산)과 사명산(대청산) 그리고 영선사(싸악) 일대를 두루 살펴보고, " 풍광이 참으로 천하의 절경이로군!" 하며 몹시도 부러워했었다고 전해오는데, 겨루어 대륙 침략의 야욕을 품고 있었던 일제는 북빈 매축과 영선산 착평공사를 서둘러 강행하기 시작했다.그것은 1905년 정초에 개통된 경부선 철도의 기착지 「초량역」과 그 해 9월에 준공된 「관부연락선」이 와 닿던 부산항 제1부두를 가로막고 있는 해안으로 돌출된 야산인 쌍악을 제거하여, 북쪽으로 바다를 메워 길을 연결하는 부두 들머리에 본격적인 부산역을 건축할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타고 온 연락선에서 곧바로 한성(漢城)으로 가는 특급열차에 편하게 환승하려는 교만한 속셈을 지니고 있었던 까닭이었다.

경술국치(1910. 9. 22.)로 온 나라 백성들이 분노와 실의로 버둥거리는 참혹한 정황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부산역사(釜山驛舍)는 370여 평의 부지에 높이 75척의 붉은 벽돌로 세운 서구식 사라센풍을 연상시키는 건물이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듯 웅장하고 수려한 모습을 내밀었다.대한제국 융희4년(순

종4년), 즉 1910년 10월 31일이었다. 바로 그 날의 준공식은 매축 공사 초기 단계부터 매축지 중앙에 마련된 호수 같은 둥근 웅덩이를 메우는 작업이었다. 일본 거류민단 간부와 철도사무소 관계자들이 예복으로 단장하고 흰 장갑을 낀 채, 모두들 삽 한 자루씩 들고 웅덩이 둘레에 도열해 식순에 따라 음악 반주에 맞춰 미리 준비된 토사(土沙)를 웅덩이 안으로 퍼 던져 넣기 시작하더니, 메워지고 다져지고, 이윽고 학교 운동장만큼이나 드넓은 광장이 조성되었다.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덤덤한 말투로 "새마당이 넓기도 하다"라고 했다.

그 이후로 '새마당' 은 36년간 파란만장한 세월의 고초를 당하였고, 8.15광복으로 귀국선을 타고 온 수십만의 귀환 동포들이 '새마당'을 밟고 제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또한 6.25전쟁 때도 수십만의 피난민들이 '새마당'을 밟고 밀려 와 골목마다 판자촌이 현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3년 소위 역전 대화재란 천재지변을 당하여 부산역은 제 기능을 잃고, 1965년 11월 1일 폐쇄되었다. 또 10여년이 지난 1977년 6월 「정석빌딩」이 '새마당' 터전을 깔고앉게 되었으니, '새마당'은 영영 소생할 수 없는 운명의 피안으로 사라져갔다. 다만 이별의 장소로 기억될 뿐이리라.

이영근 기자

노인의 마음(老心)

어머니 자궁 떠나 세상에 왔음 이여
온 마음 다하여서 살아온 삶이지만
자성이 없었던 탓에 계산함이 불가다

참으로 긴 세월을 함께한 정영이여
땀 흘려 일구던 것 후세에 도움 될까
이 한 몸 세상 떠날 때 후회 없길 원 하네

하지만 세상 삶에 경륜만 쌓인 탓에
무식한 기억 찾아 말 수만 늘었으니
노인아 아집 버리고 화합하다 떠나세

정리할 시간들이 짧음이 한이지만
노인네 추한 꼴을 후세께 뵈지 말고
착실히 몸단속 하여 어여쁘게 떠나세

莞島 竹靑里에서

혼 돈

동양철학 – 1(연재물)



동양철학 사상을 통해 우리삶의 모습을 객관적 측면에서 보고, 방향성과 추구되어야할 지향성이 어떤것이며 개인과 조직과 사회가 건강함의 표출이 어떤 것인지, 중국의 고대 신화집인 산해경에 있는 이야기로 시작 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가 혼돈 할적에 天山에 혼돈이란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말이 좀 이상하게 생각 되시겠지만 태초에 무질서한 세상의 모습인 혼돈을 형상화 한것입니다. 이 혼돈은 이름이 있었는데 그이름이 제강이라고 하고 그 모습은 푸댓자루 같고 발이 6개 달렸으며 날개가 4개 달렸다고 전해옵니다.

더욱 혼돈스러운 것은 얼굴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춤과 노래를 잘했으며 또 놀기를 좋아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얼굴이 없다함은 이목구비로 느끼는 말초적 감각기관이 없다는 것이고 춤과 노래를 잘했다함은 원초적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놀기를 좋아 했다는 것은 자연에 잘 순응했다는 뜻입니다.

이 신화를 전국시대에 살았던 장자는 약간 덧 붙입니다.

이 혼돈인 제강은 남해의 제왕인 숙과 북해를 지배하던 북해의 제왕 홀이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강은 놀기를 좋아해서 가끔식 숙과 홀을 불러 융숭한 대접을 하곤하여 서로 아주 친해졌는데 숙과 홀이 친구인 제강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제강은 놀기도 좋아하고, 노래와 춤도 잘추는 좋은 친구인데 얼굴이 없어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숙과 홀은 어느날 제강의 집을 방문하여 구멍을 7개 뚫어 얼굴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강이 얼굴, 즉 감각기관이 생기자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을 까요? 그것은 감각기관으로 통한 생각과 감정이 오염되었고, 이로 인해 기질이 병이 들었고, 그병으로 인해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 시공간이 제한된 존재로 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다음호에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하 사주명리 연구소

청하 사주명리 연구소

상담 내용 직장운, 재물운, 평생운, 적성분석, 진로선택
궁합, 작명(신생아), 주역점
※사주분석 후 심리상담

위치 : 부산시 중구 대청로 141번길 6 201호
(중앙동 부산우체국 뒤 식당골목 담원집 2층)
TEL : (051) 256-3504 FAX : (051) 254-7974
H.P : 010-8484-4099

수강생 모집

교육과목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주 역 : 설괘전, 계사전, 잡괘전
성명학 :
기타 수정사항은 본원 래원 & 전화 문의 요망
매주 목요일 고급반 : 6시 30분 ~ 9시까지 문재호 명리학 박사 강의중
(현 동의대학교 한의학과 교수)
※ 매주 금요일 : 6시 30분 – 8시까지 고전 콘서트(인문학) 무료 강의



개원 기념으로 초대권 지참시 2017년 신년운수를 30%할인(2만원)된 금액으로 상담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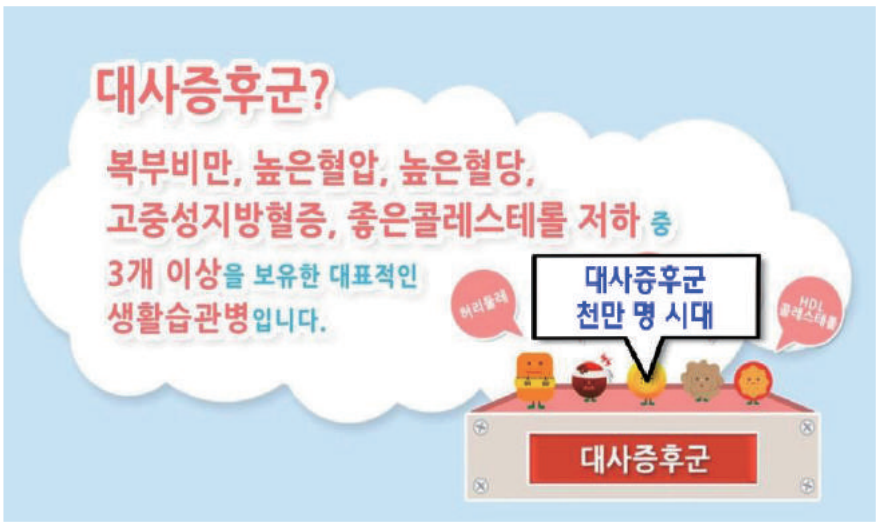
Pulmuone

건강의적신호
대사증후군!

혹시 나도 대사증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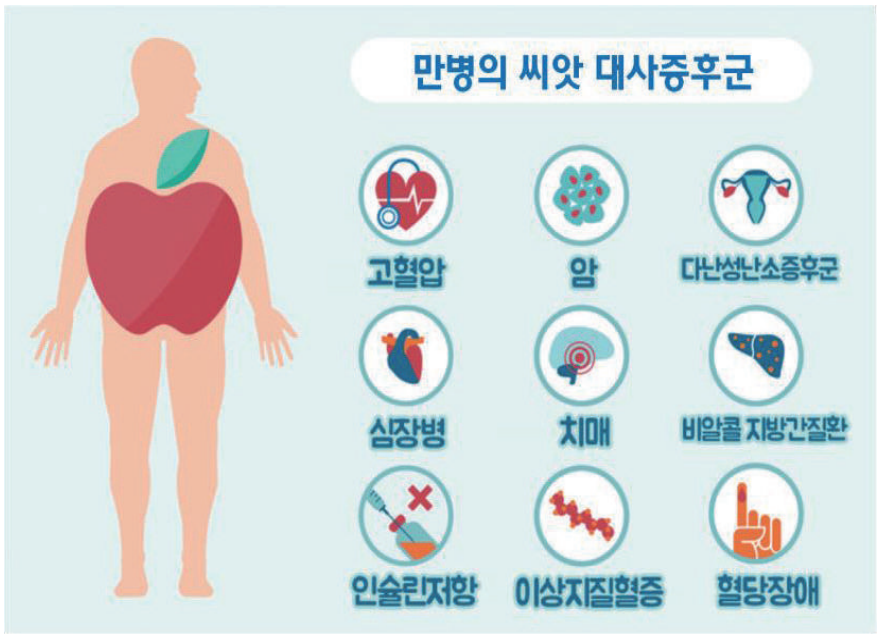
'만병의 몸통' 뱃살...허리 34.6인치, 5년내 당뇨병 위험 2배

남 35.4인치, 여 33.5인치부터 복부비만 관련 질병위험그룹 한국인 4~5명 중 1명꼴 해당



대사 증후군 진단 기준

대사증후군	주요 증상
허리둘레	남성 : 90cm 이상 여성 : 85cm 이상
중성지방	150mg 이상
HDL콜레스테롤	남성 40mg/dL 이하 여자 50mg/dL 이하
혈압	130/85 mmHg 이상
공복혈당	100mg/dL 이상





내 몸 리셋 프로젝트

풀무원 메타 파이브



허리띠가 늘어나면
수명은 줄어듭니다.

컨셉 차별 풀무원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담은 프리미엄 제품
5가지 기능성으로 **대사증후군 관리를 한번에!**

섭취 차별 하루 2정씩 2번 / 섭취와 휴대가 간편한
편리한 대사증후군 관리 건강기능식품

효능 차별 대사증후군의 종합적 관리를 통해 복부/혈당/혈압/중성지방/HDL
상호상승효과(시너지)로 효율적 관리

원료 차별 안전한 천연원료 녹차추출물, 바나바잎, 나토균배양분말, 두나리엘라, 양파 외피추출물, GABA의 **천연 복합 시너지 효과**

*선착순 20명에게 메타파이브 무료 체험행사 실시

*사은권을 절취하여 지점을 방문하시면 칼슘 10일분을 드립니다.

*가족과 친구의 건강을 지켜주는 풀무원 새 식구를 초빙 합니다.

풀무원 중앙지점
(범일역 3번출구앞 동성빌딩 5층)
051-634-0462,0463
지점장 한지윤 010-3878-5063
홍보대사 임금칠 010-4952-0311

풀무원 사은권
2017.6.30까지